



| | |
|---|---|
| 코스피 2968.21 (-22.36) | 코스닥 981.38 (-4.37) |
| 금리 (국고채 3년) 0.953 (+0.017) | 환율 (USD-달러) 1085.60 (-2.00) (6일) |



[산업]
기아자동차
30년 만에 로고 교체
모빌리티 기업 도약
08

코스피 3000시대, 증권사 ‘디지털 플랫폼社’로 대변신

2021 미라클 코리아 코로나19 딛고 재도약

증권부문
업계 올 화두는 ‘빅데이터 전쟁’
마이데이터 시대 WM 격전 예고
자산관리 대상 젊은세대로 변화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 마련

신축년 주식시장의 출발이 좋다. 6일 코스피는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새 지평을 연 셈이다. <관련기사 3면>
증권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빅데이터 전쟁’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에 첫걸음을 내딛는 해다. 마이데이터 시장이 개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대형 핀테크 기업이 자산관리(WM) 시장에서 격전을 펼칠 경쟁자가 된 것. 데이터 자산 활용역량은 이제 전통 증권사에도 생존의 영역이 됐다. 각 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금융업의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핀테크 업체와 맞닥뜨렸다.

지난해 주요 수익원이 된 위탁매매(브로커리지) 부문의 강화와 함께 ‘새 먹거리’를 찾기 위한 구조적 개편도 시작했다. 자산관리(WM) 부문의 수익 기여도를 높이려는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주요 국내 증권사 올해 조직개편 변화>

| 증권사 | 개편내용 |
|---------------------------|---|
| 한국투자 증권 | 디지털플랫폼본부, IB전략수립, IB전략컨설팅부, M&A인수금융3부, PF개발금융담당과 프로젝트금융부, 대체투자담당 신설 |
|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 WM마케팅본부와 VIP솔루션본부를 WM총괄 직할로 편제 |
| NH투자증권 | WM디지털사업부 신설, WM사업부 5개 지역본부 4개로 재편 |
| KB증권 | WM총괄본부 직속 CPC전략부 신설 |
| 하나금융투자 | WM그룹 4개에서 7개로 통합·확대 |
| 신한금융투자 | 상품관리부, 운영위험관리팀 신설 |

진행 중이다.
◆변화는 숙명, ICT 플랫폼 회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막대한 유동성 유입은 자산관리 대상을 장년층에서 젊은 세대로 바꿔 놓았다. 확보하려는 고객의 타깃도 20·30세대로 변화됐다. 디지털 채널 경쟁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금융권과 빅테크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 주요 테크핀·핀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었다. 최종 목표는 막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자산관리 플랫폼이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전통 증권사들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자산관리플랫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권사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선 ICT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을 선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CT 플랫폼을 활용해 중개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전통적 자산에서 비상장 주식, 회사채, ESG 관련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의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증권사도 이 점을 알고 있다. 생존을 위한 이들의 고민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묻어나다.
한국투자증권은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본부’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신설했고, NH투자증권도 ‘WM디지털사업부’를 만들었다. 이외에 KB증권은 투자 플랫폼 경쟁력 확대를 위해 마블랜드드라이브와 프라이머의 조직 기능을 강화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 변화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ICT본부에 애자일(Agile) 운영 체계를 도입했다.

CEO들도 신년사를 통해 조직 전체를 디지털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일상 안에서부터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은 “올해를 ‘디지털 미래에셋’의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자”고 촉구했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사장 역시 “4차 산업혁명이란 역사의 변곡점인 올해의 경영 목표는 디지털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명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3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격차’ 빨라진다

D램·낸드·파운드리 관전 포인트 삼성·SK 등 생산 능력 확보 주력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호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미중무역분쟁 여파와 고성능 D램과 낸드 플래시 출시, 파운드리 초미세 경쟁이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는 지난해 11월 전세계 반도체 기업 매출이 394억 달러였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7%,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5일 이례적으로 반도체 부문만 떼어내 지난해 수출액이 1100억달러 안팎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며, 올해에는 초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도체 가격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8G D램 가격은 3달러 중반으로 치솟은 상태다. 지난해 마이크로 정전 사태 이후 큰 폭으로 올랐다. 트렌드포스는 1분기에 전분기보다 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밖에도 여러 전문가들은 올해 반도체 시장 호황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올해 첫 행보로 평택 공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에는 소비 심리 회복으로 IT와 스마트폰 등 시장 성장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호재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가 내놓은 차세대 콘솔이 ‘대박’을 터뜨렸고, 비대면 열풍에 따른 IT 수요 증가와 함께 인텔 차세대 프로세서 출시 등 시장이 뜨거워질 조짐이다. 구글이 지난해 말 서비스 문제를 겪은 이후 서버 확충에 나섰다 알고리즘 등 서버 업체 발주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미국 마이크로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4분기 미중무역분쟁으로 화웨이 수요가 쪼그라든 상태에서도 얼마나 성과를 거뒀느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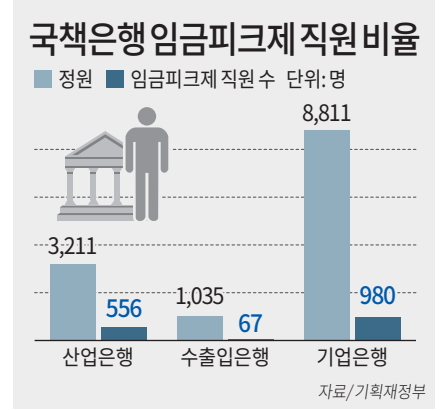
따라, 올해 글로벌 수요를 추정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이 미국 기준 1분기(9~11월) 매출액 57억달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다.
슈퍼사이클이 현실화한다면 생산 능력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평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지난해 설비 투자에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197억달러를 쏟아 부으며 슈퍼사이클에 대비한 상태다.
특히 삼성전자는 평택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여력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4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국책은행 ‘명퇴제도’ 유명무실 5년째 명퇴 0명... 조직 노후화

직원 10명 중 1명 임금피크제 선택

0명. 지난 5년간 국책은행의 명예퇴직자수는 0명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2014년,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010년 마지막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제도는 남아있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없다는 설명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난해 명예퇴직자수는 0명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난해 2014년,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010년 마지막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제도는 남아있지만 명예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없다는 설명이다.
◆국책은행 퇴직금, 시중은행의 37.5% 수준
명예퇴직자가 없는 이유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금이 시중은행보다 적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의 준정년 퇴직금은 월평균 임금의 45%에 남은 퇴직기간의 2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컨대 월 500만원을 받는 직원이 60세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할 경우 명예



퇴직금은 6750만원이다.
시중은행은 명예퇴직시 36개월치 이상 급여와 함께 전직지원금, 자녀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같은 월 500만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들의 명예퇴직금은 1억8000만원+a으로 최소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보니 임금피크제를 이용하는 직원은 늘어가는 실정이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다.
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조정기간을 5년으로 두고 1년차 임금의 90%, 2년차 75%, 3년차 50%, 4년차 40%, 5년차 35% 수준으로 줄여나간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